

광주 송정역 고질적 주차난 해소되나

7층 1600대 주차 규모 주차빌딩 건축 허가 연말 착공 2022년 준공... 교통난 해소 기대

광주 송정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난 해소에 따라 송정역 일대 교통 정체 현상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 송정역 주차빌딩 신축이 승인됐으며,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도 마쳤다. 시는 다음 달까지 공사 업체를 입찰·선정하고 12월 착공할 예정이다.

2022년 6월 준공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주차장 부지(1만1963

m)에 7층 규모로 들어서는 주차빌딩은 1600면 주차 규모다.

광주시는 송정역 이용객이 꾸준히 늘면서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주차빌딩 신축을 추진했지만,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과 연계되면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광주시는 2018년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별개로 주차빌딩 신축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인허가 등이 미뤄지는 바람에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주차장 신축이 지연되면서 송정역 이용객들의 불편은 폭주했고, 역에서 떨어진 민간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 같은 시민 민원이 빗발치자, 이용객 시장은 최근 인허가와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를 조기에 완료해 연내 공사에 들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1년 여가 넘는 공사기간 동안 시민들이 겪게 될 주차난이다. 공사가 진행되면 400여면 규모의 1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현재 315면 규모의 대체 주차장 확보를 위해 광주시, 광산구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 관할 국유지 사용 협조도 요청한 상태다. 주차 대체지역으로 송정역 2주차장 일

구 주변 농경지와 사설 주차장 임대, 2주차장 후면도로 공사 예정부지, 송정역 광장, 송정역 주변 아파트 단지 철길 인근 및 유휴 공간 등을 검토중이다. 그나마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광주 송정역 이용객이 일부 감소함에 따라 주차난이 한정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주차장을 신축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면서 "현 1주차장 부지 내에 신축 주차장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임시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송정역 이용객들도 공사기간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수동 '꼬두메 ...'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

주택가 붐괴 위험 건물 주민복합커뮤니티로 조성

광주시가 주택가 붐괴 건물을 주민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는 동구 산수동 '꼬두메, 향기가득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생활SOC 사업 등에 대해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하는 제도로, 현실적 제약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점진위로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꼬두메, 향기가득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건축 중 붐괴돼

여러 해 동안 방치된 위험건축물을 국비 24억원을 포함한 50억원을 투입해 '꼬두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꼬두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마을사랑채, 건강증진센터, 커뮤니티 플라워 힐링가든 등 주민 친화적 여가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며 마을 거버넌스 구축, 공동체 활성화, 협동조합 구성 사업 등이 함께 추진되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그동안 생활편의시설 부재로 불편했던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앞으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와 함께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말바우시장 코로나 방역 16일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공무원, 북구자율방재단, 상인회 등이 추석명절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최원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빛고를 노인타운 온라인 놀이터 '빛다방' 개설

광주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이 장기 휴관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온라인 놀이터'를 만들었다.

16일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에 따르면 비대면 복지 서비스 플랫폼인 '특특 빛다방'이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빛고를 타운의 다양한 방방'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빛다방은 '건강백세', '평생재무', '대인관계 및 여가', '빛다방 상담실' '사이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회원은 물론 60대 이상 고령층,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쉽고 생활에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건강타운은 설명했다.

빛다방은 매주 화·목요일 업데이트된다.

지난 9일과 15일 이용설 광주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22일부터는 5개 분야 영상이 순차적으로 올라간다.

주경남 빛고를타운 본부장은 "8만여 건 강타운 어르신, 29만명에 달하는 광주 60세 이상 고령층이 온라인을 통해 삶의 활기와 재미를 찾도록 돕고 싶다"며 "스마트폰 등 정보화 교육으로 노인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전라선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에 '은 힘'

관광객·수출 증가 등 개발 논리 당위성 정부에 설명

전남도는 익산에서 여수를 연결할 전라선고속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하기위해 지역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고 나섰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라선은 지난 2011년 고속화로 KTX 운행이 본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한 경부·호남선과 달리 아직까지 3시간 넘는 시간이 소요돼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전남도를 비롯 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 등 3개 시 행정협의회는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현재 전라선은 경부·호남선에 비해 저속전철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여수·순천권 해양 관광객 등 연간 방문객이 지난 2017년 2797만명에서 2019년 3484만명으로 약 25% 증가했으며, 또 광양만권 산업단지도 연 100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어느 때보다 수도권과 거리 단축을 위한 고속철도 건설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3개 시 행정협의회, 전라선권 KTX협의회 7개 시·군(전

주, 남원, 곡성, 구례, 순천, 광양, 여수)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고속철도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자체 사전타당성조사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 개발논리의 당위성을 발굴해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국가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동부권의 주철현·김희재·소병철·서동용 의원이 건설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동

노력키로 하는 등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최병용 전남도의원 역시 전라선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18일 본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전라선 고속철도가 추진되면 전남·북은 물론, 경남 서부지역 주민들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접어들게 된다"며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도의원, 시장·군수, 각급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역량을 결집해 국가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현재 전국에서 건의한 17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말까지 국토부가 초안을 마련한 뒤 12월 공청회 및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확정짓게 된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벌초·야외활동 때 벌쏘임 조심하세요"

광주 소방당국, 경보 발령 벌집 제거 출동 1665건

광주 소방 당국이 벌초 등 야외 활동에서 우려되는 벌 쏘임 사고 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광주 벌집 제거 출동은 모두 1665건이다. 말벌류가 13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쌍살벌 749건(45%), 외래종인 등검은말벌 344건(20.7%), 말벌 281건(17%), 장수말벌 7건(0.4%) 순이었다.

쌍살벌은 4월부터 출현해 6월 53건, 7월 139건, 8월 537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등검은말벌과 말벌도 6월 43건, 7월 231건, 8월 336건으로 증가해 10월까지

이여질 것으로 보인다.

등검은말벌은 도심 가로수나 아파트 지붕 등에 집을 지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독성이 강한 장수말벌은 땅속이나 무덤 주변에서 활동해 가을철 산행이나 벌초 시 주요 대상이다.

소방청은 지난 4월 벌 쏘임 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경보는 벌 쏘임 사고가 주 370건 이상, 벌집 제거 출동이 주 1만건 이상 2주 연속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발령된다.

최민철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야외 활동 시 긴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해 야 한다"며 "벌초 작업 전 무덤 주변 벌의 왕복 비행을 관찰하고 구멍이나 흙무더기가 있으면 장수말벌의 동지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영광 법성포 굴비의 명가

영광(법성포)굴비·고추장굴비



부세 보리굴비 전문생산업체

전문판매점을 모집합니다!

대 31~33cm

중 29~30cm

소 28~29cm

녹차 얼음밥과 찌서 드시는 보리굴비는 그 맛이 우리들에게 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보리굴비의 원산지는 중국산입니다.)

저희 회사는 영광굴비, 고추장굴비, 보리굴비 전 제품을 해외로 수출합니다.

유명수산 영어조합법인

T. 061.356-8100, 8060